

아크릴산 공급과잉 갈수록 심화

BASF 극동공장 및 EA·三菱 미국공장 건설 ... 이데미쯔 5만톤 완공

아크릴산 메이커들이 유럽 및 동아시아지역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설비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각 메이커들은 현재의 증설분이 95년 미국시장, 97~98년 유럽·아시아지역 수요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BASF는 올해말까지 극동아시아 진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극동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미국—유럽—아시아에 생산기지를 확보 글로벌화가 완성된다.

Elf Atochem·三菱油化도 미국 설비투자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모두 Huston에 저장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Elf는 Baltimore에도 저장창고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BASF는 합작형태로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는 중국 남부중 한 곳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연산 10만~20만톤으로 가동시기는 아시아지역이 수급균형을 이루는 95~96년에 맞추고 있으며, 합작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출자도 검토중이다. BASF는 미국시장에 미정제된 아크릴산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독일 Freeport에 설비를 14만톤 증설했다.

또 BASF는 90년대말 대규모 공장을 Antwerp에 건설할 장기계획도 세우고 있다.

Hoechst 계열의 멕시코 진출 기업인 Celanese Mexicana도 연산 3만톤 규모의 공장을 93년초 완공할 예정이다. Hoechst Celanese는 미국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Clear Lake 공장 시설능력을 17만톤 증설할 방침이다.

한편, Union Carbide는 David Tull에 있는 9만톤 설비를 20~30% 증설할 예정인데, 현재 증설분은 미국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세계 Emulsion 시장추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지역은 공급과잉이 심각한데 일본촉매, 三菱石油 양사는 이 지역에서 아크릴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아크릴산 가격은 CIF기준 톤당 900달러 수준이며, 이 가격은 미국보다 파운드당 48센트, 유럽보다 kg당 1.9DM 정도 높다.

일본의 생산능력은 일본촉매 연산 15만톤(2/3가동), 三菱石油 6만톤, Toagosei 3만톤 등이며 Idemitsu도 5만톤 공장을 완공, 공급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아직 가동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BASF, Elf Atochem이 오랫동안 합작 투자해 왔는데 지난해 6만톤 증설을 마쳐 총 22만톤 규모로 늘어났다.

한편, 체코의 Sokolov가 계획해온 설비 증설은 Dow와 Atochem간의 경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0/15>